

2023학년도 송실대학교 신입학 수시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 | | | | | |
|------|--|------|--|----|--|
| 모집단위 | | 수험번호 | | 성명 | |
|------|--|------|--|----|--|

※ 주의사항(문제 1~2번 공통)

- ① 답안 작성 시 검은색 필기구(연필·볼펜·사인펜 등)를 사용해야 하며, 검은색 외의 다른 유색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② 답안을 수정하려면 연필의 경우 지우개로 지우고 재작성하며, 기타 검은색 필기구의 경우는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은 줄 위에 작성합니다.(수정펜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 ③ 답안의 작성은 우리말 문법과 원고지 사용 규칙을 따릅니다. 답안의 분량은 각 문제에서 정한 글자 수를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글자 수를 초과하거나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점됩니다.
- ④ 각 문제의 답안은 반드시 해당 답란에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문제의 답안이 해당 답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답안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 ⑤ 제시된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답안지에 다시 옮겨 적지 말고, 답안의 내용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제목이나 번호를 달지 마시오.
- ⑥ 제시문의 일부 문장을 직접 인용할 경우 따옴표로 인용 표시를 해야 하며, 직접 인용의 경우 외에는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오.
- ⑦ 답안지에 문제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표지(標識)나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을 경우 답안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토대로 《보기 1》의 작품에 담긴 작가의 자기 성찰이 지닌 의미에 대해 논술하시오.(700±70자, 40점)

문제 2 《보기 2》의 작품 설명이 지닌 한계를 제시문 【다】의 ㉠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논술하되, 제시문 【라】, 【마】, 【바】를 근거로 활용하시오.(800±80자, 60점)

《보기 1》

오른쪽은 〈나는 피노키오〉라는 작품이다. 다음은 작가와의 인터뷰 중 일부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돌이켜 보니 많은 작품들이 나의 진실함을 드러내지 못한 채 그저 치장하기에만 급급하였다.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나를 보며 마치 내가 이 사회의 꼭두각시 피노키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보기 2》



왼쪽은 〈32KG〉이라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모델은 극단적으로 깡마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빼만 남은 기이한 몸의 이미지를 통해 작가는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무리하게 추구하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젊은 세대의 비뚤어진 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뒷면에 계속>

제시문 【가】

대부분의 현대인은 소비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지만, 좀 더 두드러지는 계층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다. 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의 명품을 걸치거나 결혼식이나 파티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쓴다.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런은 이러한 소비를 ‘과시적 소비’라고 부른다. 상층 계층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과시하려고 눈에 띄는 소비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품은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야만 수요가 발생하고 또 증가한다. 가령, 명품이나 다이아몬드는 고가임에도 소비자의 허영심을 자극하여 소비가 늘어나게 한다. 반면, 가격이 떨어지면 희소성도 내려가서 소비가 줄어든다고 한다. 이처럼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라고 한다. 베블런 효과는 소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의 허구성을 잘 보여준다.

과시적 소비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상품이 지시하는 어떤 이미지를 돈으로 사고자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보드리야르는 소비 사회에서 사람들이 단순히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호를 소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기호란 자기 아닌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명품은 가방이나 시계, 자동차 자체가 아니라 고가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차별성과 세련된 취향을 의미한다. 현대인들이 이미지를 소비함으로써 얻으려는 최종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 혹은 집단과의 차이이다.

제시문 【나】

아침 티브이에 난데없는 표범 한 마리
물난리의 복새통을 틈타 서울 대공원을 탈출했단다
수재에 수재(獸災)가 겹쳤다고 했지만, 일순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 표범의 우울한 눈빛이 서늘하게
내 가슴 깊이 박혀 버렸다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처럼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 그냥 남은 세 명의 드가
그러나 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
빠삐용,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
친근감 넘치는 검은 뿔테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데
저녁 티브이 뉴스 화면에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
거봐, 결국 죽잖아!

티브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드가?

제시문 【다】

헤겔의 ‘인정 투쟁’ 개념은 호네프에 의해 논의가 확장된다. 호네프는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는 투쟁이 인정 관계의 장애나 손상, 곧 인격에 대한 모욕에서 비롯한다는 데 주목한다. 인간은 정서적인 존재로, 권리의 담지자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때 자기실현에 도달할 수 있다. 인정을 통해 긍정적 자기 관계에 도달하지 못한 개인은 삶 전체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호네프가 규정한 ‘인정을 둘러싼 투쟁’이다.

그런데 호네프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relation-to-self(자기 스스로 자신과 맺는 관계)’라는 개념을 아울러 언급한다. 호네프는 인간의 정체성이 타인에 의한 확인을 핵심으로 하는 상호 주관적 관계에 의존한다고 가정하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타자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타자가 나를 멸시할 때 그 멸시가 중요한 이유는 그 멸시로 인해서 내가 나를 멸시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멸시하게 되면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되며 이는 자아를 찾고 이를 실현시켜야 하는 윤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대의 적이 된다.

<다음 면에 계속>

제시문 【라】

매클루언은 매체를 특정한 목적이나 필요를 만족시키는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환경이라고 본다. 이러한 환경은 ‘보이지 않는 배경 원칙’을 지니고 이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인간의 지각과 의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매클루언은 “매체는 메시지이다.(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표현을 통해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보다 매체의 배경 원칙에 주목하라고 한다. 매체의 내용은 마치 강도가 집을 지키는 개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던지는 고깃덩어리처럼 인간 경험에 무의식적으로 스며드는 매체의 편향성을 잘 의식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물의 존재를 모르듯이 인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매체 환경을 의식하기란 어렵다.

매클루언은 매체를 인간 경험의 규모와 형태를 형성하고 제어하는 배경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배경을 인식하려면 역이미지, 다시 말해 개인의 삶의 습관이나 행동 양식을 바꾸는 매체 환경의 보이지 않는 성격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감각을 확장하는 매체는 감각 간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알파벳과 인쇄술은 사람의 말을 시각적인 부호로 전달하면서 귀 대신 눈이 지배하는 새로운 감각 비율을 만든다. 구어 문화에서는 듣는 것이 믿는 것이었는데, 문자 문화에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 된다. 인간의 감각 기관은 매체가 형성하는 감각 간 불균형을 완화하며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감각의 마비 상태를 일으키는데, 인간은 이렇게 매체가 만든 지각 환경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마비 혹은 차단된 상태는 인간이 매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인간의 삶에 미치는 매체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제시문 【마】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은 범죄 통계에서 하층 노동 계급 청년들의 재산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그들 개인이 아니라 사회 자체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았다. 머튼에 따르면 미국 사회는 물질적 성공을 문화적 목표로 제시하고,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을 위한 합법적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하층 노동 계급 청년들은 물질적 성공이라는 문화적 목표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서 제공되는 제도적 수단 사이에서 불일치를 경험하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공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비난까지 받게 된다. 이는 이들에게 물질적 성공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손에 넣기 위해 불법적 방법이라도 시도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결국 강도, 상점털이, 절도, 소매치기 등의 재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제시문 【바】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 시계를 차고 자신의 심장 박동 수를 확인하며 달리기를 한다. 달리기를 하면서 오후에 있을 회의에 관한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전자 우편 확인도 가능하다. 출근한 다음에는 언제나 그렇듯 업무에 몰두한다. 점심은 건강식을 먹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몸에 좋다는 약 몇 알을 챙겨 먹는다. 저녁에는 야근하거나 취미 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상을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 소통망(SNS)에 기록한다. 완벽한 하루, 나쁘지 않은 건강한 삶으로 보이는가? 당신은 이러한 생활에서 자유로운가?”

‘웰니스’라는 말은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말이 하나의 생각과 신념으로 포장됨에 따라, 웰니스는 사람들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매혹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오늘날 좋은 사람이란 육체의 나쁜 욕망을 억누르고, 육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고, 쉽 없는 기도로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날을 준비하는 자를 말하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란 잘 사는 사람이다. 단 하루라도 즐거움 없이 보내는 자, 저주를 받으리라!

현대 사회에서 웰니스는 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다. 살면서 매순간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웰니스는 수많은 광고와 라이프 스타일 잡지들이 앞 다퉈 외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은연중에 전파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 명령이 외부에서 내려진 건지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 건지도 헷갈린다.

<끝>